이태원 참사 희생자 애도 · 위로

이학수 정읍시장, 빛 축제 · 직원 한마음 대회 등 일부 행사 취소 · 조기 종료 지시

이학수 정읍시장이 서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달했다.

이학수 시장은 지난 31일 영상 간부회의를 열고 "안타까운 사고의 사상자분들과 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직 치료 중이신 부상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시민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비극적 사고로 국가적 애도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모든 공직자와 시민들도 사망자들의 명복을 빌며, 애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정읍천 빛 축제와 직원 한마음 대회 등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행사와 시 보조금 지원 행사에 대해 가급적 조기 종료하거나, 축소해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또, 앞으로 진행 예정인 대규모 집합 행사 현황을 파악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단풍철 행락객 등 집중 방문 장소에 안전 점검 요원을 배치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사고 수습 기간 중 공직자들의 불필요한 출장이나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단체 회식 등의 음주 행위를 삼가라고 지시했다.

시는 애도 기간 중 읍·면·동과 사업소 등에 조기를 게양하고, 직원들은 검은색 리본을 패용해 사고 피해자들을 추모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희생자 추모와 부상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정읍시민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정읍시는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핼러윈을 앞두고 인파가 몰리면서 대형 압사 참사가 발생해 현재 기준 154명이 사망했다.

정부는 참사 다음 날인 30일부터 오는 11월 5일 밤 24시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 관계인구 10만확보' 기본 틀 마련

심덕섭 고창군수, 모금 · 운영 · 사이버군민제도 운영 조례 제정

심덕섭 고창군수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계인구 확보' 방안의 기본 틀이 마련됐다.

지난 31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와 '고창군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조례'가 고창군의회를 통과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하고 세액 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도 적용된다.

군은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꾸려 특산품과 체험·관광상품 중에서 기부자에게 선물할 답례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출향인과 관광객이 고창을 방문할 수 있도록 특색있는 체험·관광 답례품 선정에도 신경쓰고 있다.

체험·관광을 통해 보다 긴 시간 동안 밀도 높은 지역 교류를 하며, 고창 지역사회에 대해 배우고 두 번째 집이라고 인식할 만큼 지역에 스며드는 경험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이버 고창군민제도'는 인터넷상에서 사이버 고창군민으로 가입하여 군민증을 발급받으면 고창군민과 동등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군은 사이버 고창군민들에게 지역의 다양한 행사들을 알리며 지속적인 고창방문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앞서 심덕섭 고창군수는 관계인구 10만명 확보를 중점추진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겨울철 한파대비 상수도 종합대책 추진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기습 한파로 인한 동파 피해 발생에 대비해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2022년 겨울철 한파대비 상수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배수지, 가압장 등 24개소의 수도시설물과 배·급수관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취약요소 발견 시 긴급 보수·보강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더욱 안정적으로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겨울철 한파대비 집중 대책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집중 대책기간 동안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 대처를 위한 '동절기 급수대책'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 대행업체 및 협력업체 등으로 구성된 긴급 보수반(3개반)을 편성·운영 계획을 수립하였다. 계량기 동결과 동파로 발생한 민원을 신속 대응 할 예정으로 수도계량기 및 급수관로 동파 발생 시 주간에는(063-580-3871~4), 야간 및 공휴일에는(063-580-4469)로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올해 겨울 수도계량기와 가정내 외부 노출된 옥내 배관 등에 동파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보온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수도계량기 보호통, 보온재 2,000개를 구입·설치하여 단독주택 등의 계량기 동파 피해를 사전차단 할 계획이며, 계량기 동파로 인한 불편사항은 전화로 신고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말했다.

특히 계량기 동파로 인한 수돗물 누수 사항은 상수도 유출유량 증가에 대비하여 읍면사무소에 공문을 발송하고 각 마을별 앰프방송 및 순찰을 실시하여 빈집, 공가 및 상수도 관로부에 누수 발생 시 상하수도사업소에 신고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역 소식통

부안군, 김장김치 특별 판매전 개최

부안군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달간 부안로컬푸드직매장에서 '김장김치 특별 판매전'을 열고, 김장세트(절임배추 + 양념)와 김치류 및 각종 김장재료(절임배추, 김치양념 등)를 판매할 계획이다.

직매장에서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11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직매장 현장 접수 및 전화로 사전 예약을 받아, 지정한 날짜에 김장재료를 방문 또는 택배를 통해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김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의하면 지난 24일 기준 배추 10kg당 평균 도매가격이 9,660원으로 지난해(7,284원)와 비교하면 32.6% 비싼 수준이지만, 절임배추를 20kg 기준 36,000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기로 하였으며, 직매장 가입 회원에게는 절임배추 및 김치류를 10%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교육 … 기후변화 대응

고창군이 지난 2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창군 벼 재배농가 100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교육'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고창군에서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이끌고 있는 김중기 교수(전북대 식품유통학과)가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벼 재배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포집하고 생육을 관리해 논물관리 방법에 따른 최적의 감축계수를 개발하기 위한 농식품부 공모사업이다. 전국 8개소 중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고창군이 선정됐다.

현재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송암유기농영농조합법인 54농가가 140ha(543필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공정한 청렴윤리의식 쌓길"

부안군, 간부공무원 청렴리더십 교육 실시

부안군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난 31일 5급 이상 간부 공직자 40여명이 청렴리더십 교육을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 강사를 모시고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조직혁신의 리더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청렴윤리의식 함양과 함께 청렴문화를 이끌어갈 견인차로서의 확고한 청렴 마인드 확립을 취지로 기획됐다.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본청, 사업소, 읍면장 5급 이상 공직자들은 사무실에서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고위 공직자로써 직원과 소통하고 청렴리더의 역할 모델과 책임감 있는 업무 기준제시 등 청렴리더십을 되새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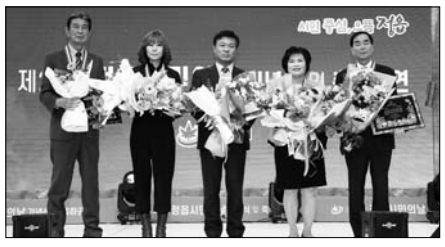
한편, 교육이수와 함께 청렴연수원에 선정된 청렴도서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댄 애리얼리 作) 읽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부안군 조직혁신을 위해 간부공무원이 앞장서 청렴 응원릴레이, 스마트 청렴 골든벨 퀴즈대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직원 간 소통의 계기를 마련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솔선수범하는 리더로서 부안군 간부 공무원이 청렴한 부안군을 만들 수 있도록 공정한 청렴윤리의식을 쌓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제28회 정읍시민의 날 기념식 열려



정읍시민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정읍의 희망과 도약을 다짐하는 '제28회 정읍시민의 날' 기념식이 성황리에 열렸다.

시는 지난 29일 정읍사공원 특설무대에서 제28회 정읍시민의 날 기념식을 열고 '시민 중심, 으뜸 정읍'으로의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수 시장과 윤준병 국회의원, 고경윤 정읍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시의원, 자매도시 관계자, 기관단체장,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시립국악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시민의 장과 감사패 수여식, 기념사, 축사, 시민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축하공연에서는 인기가수 김용임과 이용, 오로라, 라스트포원, 방서희 등이 출연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며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시민의 날 행사의 꽃인 정읍시민의 장 수여식에서는 △문화장 김영수 정읍문화원장, △산업장 서선민 헤어라인 대표, △효열장 이정민 씨, △농업장 유남영 정읍농협조합장 4명이 수상했다.

또, 정읍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일개발 김호석 회장이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시민"이라며 "이번 시민의 날을 계기로 시민 중심의 살기 좋은 정읍, 으뜸 정읍을 위한 힘찬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